

3월 16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3월 16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미국증시 상승세 지속 [DOW: 7,223.98pt (+0.75%)]	단기 급반등에 대한 경계감이 한때 지수를 마이너스권으로 끌어내렸지만, 배어마켓 랠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장후반 지수를 상승세로 반전시키며 미국 증시는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음.
의료 제약 관련주 강세	인수합병 발표가 이어졌던 의료 제약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음. 세링 플라워를 인수하기로 한 머크는 합병에 따른 시너지기대로 번스타인이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 초과'로 상향한 여파로 12.7% 올랐고, 세링플라워 역시 8.5% 상승했음. 의료보험업체 휴마나도 피인수 가능성이 제기되며 강세를 보였음.
유가 약보합, 달러 약세 제동 [WTI: \$46.25 (-\$1.66)]	추가 감산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를 앞두고 국제유가가 등락을 거듭한 끝에 약보합권에 머물렀음.
무역거래·물가 하향	미국의 1월 무역적자 규모는 6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1월 무역적자가 전월 대비 9.7% 감소한 36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이는 2002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임. 무역적자가 감소한 것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수출과 수입 모두 위축됐다는 점을 들어 '경기침체'의 부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음.
소비자신뢰지수 '반등'	소비자 신뢰지수는 예상밖으로 상승세를 보였음. 미국 미시간대학이 이날 발표한 3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56.6을 기록해 2월의 56.3에서 0.3포인트 상승했음. 지난해 11월 55.3으로 28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반등하고 있음.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블룸버그의 전망치 55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사상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음.
G20 "부실채권 처리 원칙 합의"	기획재정부는 15일, 영국 런던에서 지난 13, 14일 양일간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 "부실채권 처리원칙 합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8개항의 `재무장관 성명서`에 합의했다고 밝혔음. 재정부는 또 "금융정상화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의 국제적 논의와 관련해 한국 외환위기사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처리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제안했다"며 "부속문서 형식으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공통 원칙 및 워싱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제목	주요 내용
환율·뉴욕 훈풍에 국내 주식펀드 2주째 활짝	15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이 지난 13일 오전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일반주식펀드는 한 주간 6.12% 상승. 환율 급락으로 외채 상환 부담을 덜게 된 금융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금융주 테마펀드들의 수익률이 높았음. 코스닥지수가 6.75%로 선전했지만 중형주와 소형주가 각각 6.09%, 4.03%에 그치면서 중소형 주식펀드는 6.06%를 기록. 배당주식펀드는 한 주간 5.78%로 주식형 유형 가운데서 가장 낮은 성과를 보였음. 한편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 펀드는 6.23% 상승했음.
삼성重, 세계최대 반잠 수식 원유시추설비 인 도	삼성중공업은 지난 14일 3만톤 중량의 세계 최대 반잠수식 원유시추설비인 웨스트 에미넌스(West Eminance)호를 100% 자체기술로 건조완료하고 발주처인 노르웨이 씨드릴(Seadrill)사에 성공적으로 인도했다고 15일 밝혔음. 이번에 건조한 웨스트 에미넌스호는 높이 112m, 작업공간 8925㎡(2700평)로 서울-부산간 왕복거리 이상에 해당하는 전선 및 파이프 935kg 투입, 1일 평균 300명이 2년6개월간 작업한 초대형 원유시추설비임.
G20, 재정지출 GDP 2% 명문화 못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세계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는 배격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뤄졌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했던 재정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리는 내용은 합의문에 불 포함.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 자본비율을 호황기와 불황기에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용하는 방안도 원칙적으로는 의견 일치를 봤지만 경기 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현재의 BIS 비율을 유지하기로 결정.
유럽, 소매판매 8개월 연속 감소	유럽연합(EU)의 공식통계기관 유로스타트는 이날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의 1월 소매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했다고 발표. 지난해 12월 2.4% 감소한 데 이어 8개월 연속 소매판매가 감소.
유럽, 2월 자동차판매 18%↓...사상 최대폭	유럽자동차생산자협회(EAMA)는 이날 지난 2월 유럽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96만8,159대로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고 발표. 이는 2월 감소폭으로는 관련 자료수집을 시작한 1990년 이래 사상 최대폭. 지난 1월에도 자동차 판매가 7% 감소해 사상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
日 '빅3', 감산 효과 나 타난다	미국 오토데이터(AutoData Corp)와 니혼게이자가 공동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토요타 자동차의 재고 기간은 2월 말 현재 한 달 전 대비 9일 감소한 87일이며, 혼다 자동차의 재고 기간은 같은 기간 12일 줄어든 113일을 기록했다고 밝혔음. 닛산자동차도 11일 줄어든 74일을 나타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